

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 ... 강릉 단오제



단오(端午)는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수릿날,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한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했다. 또 무더운 여름을 맞기 전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

며 제사를 지냈다.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사와 관계 깊었던 단오의 풍습은 사라졌지만, 강릉에서는 지금도 단오제의 전통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매년 음력 5월에 열리는 강릉 단오제는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축제로, 1967년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된데 이어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됐다.

단오제는 음력 4월 5일 신에게 드릴 술을 담그면서 시작된다. 산신과 성황신에게 제례를 올리며 성스러운 나무인 신목을 모시고 음력 5월 3일 강릉 시내로 내려온다. 이후 5일간 제례와 굿을 비롯해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인 관노가면극놀이, 씨름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마지막 날 신목을 태우고 서낭신을 대관령으로 모시면서 단오제는 막을 내린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과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길 1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싱그러운 녹차 향을 만끽하다 ... 보성 다향대축제

전남 보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차 생산지다. 토질과 자연환경이 차 나무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라시대부터 차 재배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일찍부터 차 문화가 발달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차 재배가 이뤄졌던 곳이다. 현재와 같은 차밭은 1950년대 대한다업을 비롯한 농가들이 계단식 차밭을 대규모로 조성하면서 시작됐으며 해마다 7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계단식 차밭은 CNN이 선정한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성의 차문화를 대표하는 행사인 다향대축제는 매년 햇차가 수확되는 시기인 5월에 열린다. 직접 수확한 차잎을 뒤고 비비고 말려 차로 만드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초록빛 차밭을 무대로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거나, 녹차를 활용한 족욕을 즐기는 녹차 테라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축제기간 중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철쭉문화행사,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등 다

양한 지역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볼거리도 풍성하다. ☺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3 한국차소리문화공원

